

농어촌공사, 기후변화 대응 '2023 안전진단 포럼' 개최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부터 이틀간 충남 예산에서 농식품부·지자체·공사 업무 담당자를 비롯하여 학계 전문가, 진단전문업체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 포럼」을 열고, 기후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사 안전진단본부의 주요 성과발표(주영일본부장)와 농식품부의 정책발표, 전문가 주제발표, 토론회 등을 통해 공사의 안전 관리 노력 및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병호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난재해 예방 대책은 물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정밀안전진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강경만 과장(농업시설안전과)과 최영기 서기관(농업시설안전과)은 각각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정책 방향’,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발표가 이어졌으며, 이승수교수(충북대학교)의 ‘저수지 정기안전 점검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진단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손재권교수(전북대학교)를 비롯한 패널들은 소규모 시설이 많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노후 시설물의 안전

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문제 파악과 및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또, 무엇보다 정부와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예산·인력의 확충, 점검·진단의 확대, 성능 중심의 안전진단체계 구축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담당 부서	안전진단본부	책임자	부 장	김수용 (042-479-8260)
	기획관리부	담당자	차 장	이강희 (042-479-8299)